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당신 마음속으로 내려놓지 못한 염두는 이런 것들에 대해 꿈틀꿈틀 요동치는데, 아무 소용도 없다. 당신이, 내 마음속에는 생각이 없으며, 이러한 것은 인간의 것을 유지하고, 인간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한다면, 나는 당신이 잘못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물론 당신이 고심(高深)한 경지로 수련되었을 때 이런 것은 모두 포기해야 한다. 이 기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당신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전법륜』 중에서 이미 아주 분명하게 말했고 그 상태도 이미 설명하였다.

왜 당신이 수련 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이 법문, 내가 오늘 전하는 이 대법은 의도적으로 복잡한 속인사회에서 전하기 때문인데, 이래야만 더욱 높은 층차의 사람으로 하여금 돌아가게 할 수 있다. 만약 이 속인사회의 복잡한 정도가 부족하다면, 다시 말해서 당신에게 그렇게 큰 난이 없고 그렇게 큰 교란이 없다면 더욱 높은 층차에서 내원(來源)한 당신들은 영원히 돌아갈 방법이 없다. 법이 크고 또 속인사회 속에서 전하므로 우리 이 법은 바로 당신으로 하여금 속인사회 중에서 생활할 수 있게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당신의 미시적인 데에서, 당신 생명의 본원에서 시작하여, 곧 당신 생명을 구성하는 본원 입자에서 시작

하여 당신 신체를 개변시키고 있는데, 마치 나무의 나이테와 같이 안에서 밖으로 확장되고 있다. 당신이 오직 수련하고자 하고, 당신이 오직 표준에 도달하기만 하면 즉시 나무의 나이테와 같이 밖으로 확대되는데, 표면에 이르기까지 줄곧 확대되어 마치 나무껍질에 이르게 된 것과 같게 되면 모두 변하는데, 당신은 곧 원만을 이루게 된다. 나무껍질에 이르기 전, 다시 말해서 당신 신체의 가장 표면인 이 층 물질신체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표면상 물질신체에는 여전히 속인의 사상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분명히 속인 중의 각종 욕망이 있을 것인바, 속인 중의 색(色)·정(情)·각종 집착이 있을 것이다. 속인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수련 중에 속인의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당신들에게 남겨둔 것이다. 그러나 수련이 잘된 그 일면은 속인 표면의 신체에 이끌려 속인의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의 수련 잘된 그 일면이 표준에 도달하면 즉시 그를 갈라놓는다.

갈라놓은 후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사람의 표면, 이 면이 속인 중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 수련이 잘된 일면인, 그는 거기에 앉아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염두를 움직이지 않으며, 사상을 움직이지 않고, 신체를 움직이지 않으며, 무엇에든 모두 참여하지 않는다. 이는 사람

이 어떤 속인의 일을 할 때, 신의 그 일면으로 하여금 전혀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반면 사람의 수련되지 않은 이 일면으로 하여금 하도록 함으로써, 오직 당신이 제고 중 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제고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반대로 말하자면 만약 우리가 속인사회 중에서 표면에서부터 종심(縱深)으로 개변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러면 당신은 전혀 속인사회 중에서 수련할 수 없다. 당신의 속인사회 중의 일체 행위는 모두 신이 하고 있는 것과 같고, 변화된 신체는 곧 신의 신체와 같은데, 모두 속인의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은 전혀 수련할 수 없다. 신이 속인의 일을 하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신에게 속인의 정이 있다는 이것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로 당신 생명의 본원에서 시작하여 당신을 개변시키는데 그러면 끊임없이 표면으로 확산, 확산, 확산한다. 당신이 원만하기 전까지 당신은 표면에 상에서 줄곧 속인 중의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다만 갈수록 답답해지고 갈수록 답답해져, 최후에는 무엇이든 다 답답해져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데, 곧 원만에 근접한 것이다. 당신 전체가 줄곧 표면에까지 확산되었을 때, 당신은 바로 속속들이 원만에 이르는데, 그 한순간 아주 자연스러우며 아무런 진동도 없다. 과거의 수련원만은 진동이 있었다. 한 사람이 원만을 이루면 산이 무너지고 바다에는 해

일이 일어나며, 아주 큰 범위에 걸쳐 지진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원만, 그는 진동이 없기 때문에, 그는 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속인사회에서 수련하는데 적합하며 속인사회를 교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원만을 이룬다면, 내가 보기에 이 지구는 전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모두 속인사회 수련에 적합하도록 배치하였다.

그렇다면 수련이 안 된 그 일부분이 아직 당신의 표면으로 발전해 오기 전까지는, 당신이 속인의 마음이 없다고 해도 나는 믿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당신들은 높은 표준으로 엄격하게 자신에게 요구하고, 연공인다워야 한다. 한편으로는 되도록 속인사회의 형식에 부합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한 이것은 또 오직 이 한 가지 일만 말한 것이 아니며, 부부생활도 간단하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문제에서 당신들은 자신이 가장 편리한 방법을 취할 수 있으며, 당신이 나는 어떻게 해야 좋다고 느끼면 그렇게 해도 좋다고 말한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속인의 마음이 아직 있고, 또한 매우 강렬하여 아직 결혼하고 싶고 또 배우자도 찾고 싶으며, 또 그 처녀를 좋아하거나 혹은 그 총각을 좋아하는 이 마음이 있어 당신이 이렇게 했다면,

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당신 정념(正念)의 사상세포(思想細胞)로 하여금 발달하게 하는데, 바로 이렇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마디 속어로 형용하여 말하면 비교적 적합할 텐데, 정정당당하게 부처를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머리가 간사하고 교활해서는 안 된다!

제자: 다른 사람의 체득을 들으면 자신도 깨우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깨달은 것보다는 견실하지 못합니다.

사부: 그렇다. 그것은 당연하다. 당신 자신이 깨달은 것은 주로 자신이 수련해 낸 것이므로 그것이 가장 견실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 당신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귀감이므로 촉진이 된다. 그러므로 역시 좋은 점이 있다. 법회는 자주 열릴 수 없으며, 우리의 법회는 법회로서 좋은 점이 있다. 체득을 얘기함도 너무 빈번하게 하지 말고 정력을 법공부와 책 보기에 두어야 한다.

일부 제출한 문제는 비교적 낮은 것, 중복되는 것이고, 또 일부 문제는 책을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들은 모두 골라 뺐다. 시간 관계상 우리는 대답하지 않겠다. (열렬한 박수)

민첩한 것은 자신의 이익이 손실 받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 서이므로 이 방면의 사상 반응은 아주 빠르며, 기억력도 좋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움직이는 이 부분 두뇌는 좋은 것이 아니므로 곧 그는 업을 지을 것인데 너무 발달하여 당신의 수련을 교란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방법을 취하여, 먼저 당신 이 부분의 두뇌를 억제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먼저 잠가 놓고 잘 조정을 하고 나서, 당신으로 하여금 수련인처럼 사유할 수 있는 그 부분 사상으로 대체하고, 이 부분 사상을 발달하게 한다. 그런 후에 간사하고 교활한 그 부분을 잘 조정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개방하면 그 때에는 당신이 자신을 잘 파악할 수 있다. 당신 자신의 그 좋지 못한 사상이 의식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발달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 부분 두뇌 속으로 뚫고 들어간다. 그 부분 두뇌는 여러분의 수련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당신이 늘 잘 사용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하는 것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이런 사상이 너무나 발달된 이 뇌세포 그것을 모두 봉쇄하여 조정하므로 이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이다. 봉쇄한 후 또 당신을 위해 처리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정상적으

바로 당신은 아직 그 한 단계까지 수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해도 된다. 당신이 오늘 단번에 무엇이든 모두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즉시 부처가 되는데, 그럼 당신은 수련할 필요가 없고 당신은 바로 부처이다. 그러므로 수련 그것은 천천히 닦는 것이며 점진적 과정이다. 내가 비록 이렇게 말했지만, 당신이 생각하기에, 아, 사부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수련이 잘 되기 전까지는 표면상에서 모두 속인의 칠정육욕이 있으므로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말하는데, 안 된다! 당신에게는 비록 있지만, 나는 당신에게 최대한도로 속인에 부합하여 하라고 알려 주었다. 그러나 당신이 엄격하게 수련인의 표준으로 자신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당신은 수련하고 있지 않음과 같다. 그것은 바로 이런 변증적인 관계이다.

제자: 백인 수련생으로서 일체 시간을 이용하여 법을 듣고자 하는데, 아직 동시통역 녹음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전법륜』을 읽은 것을 녹음해서 들을 수 있습니까?

사부: 이는 효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왜 좋지 않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말한 법은 힘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수련하는 사람으로 아직 원만을 이루기 전이라 당신이 한 말 속에는 각종 속인의 정보가 들어 있는데, 당신이 이

렇게 방출해낸 것을 당신 자신이 다시 회수하여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차 오염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당신이 책을 본다면 그것은 별개의 일이다. 지금 우리는 동시통역을 더빙하고 있는 중인데, 다그치고 있어, 곧 나오게 될 것인바, 이 문제는 머잖아 해결될 것이다. 아무튼 나는 당신에게 이 이치를 말해 주는바 곧 당신이 한 말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속인의 각종 마음·각종 사상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법은 그가 작용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표면의 이치만 들어서는 무엇인가를 드러내지 못한다. 당신 입으로 다시 말해낸 것은 당신의 이 경지의 인식인데 그렇다면 당신은 되돌아와 다시 들어도 당신은 영원히 당신 이 한 경지의 인식이다. 동시통역은 다르다. 나의 목소리도 거기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 소리는 비록 작고 통역 소리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통역을 하고 있을 뿐이며, 진정한 것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수련생은 알아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설법할 때 지닌 일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런 뜻이다.

제자: 세 살에서 다섯 살 되는 여자아이를 모두 합쳐 세 번 만났습니다. 제가 자는 등 마는 등 얇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아이는 베개를 덮고 한편으로 뛰면서 웃고 있었습니

제자: 더욱 고층차의 부처가 인류를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쭙건대, 사부님께서 왜 우리를 제도하십니까?

사부: 우주의 법은 우주 중의 전체 부동한 층차의 생명에게 부동한 층차의 생존 환경을 창조해 주었다. 그렇다면 이 생존환경 중에는 반드시 중생이 있어야 한다. 속인도 이 법이 전체 우주에게 창립해 준 부동한 층차 중의 가장 낮은 층차이다. 그렇다면 내가 서 있는 각도에서는 전체의 법과 전체의 우주를 고려해야 한다. 내가 말을 분명하게 했는가? (박수) 그러므로 나의 각도에 서서, 생명에 대해서나, 바른 것(正)과 부정적인 것(負) 두 방면의 생명에 대한 인식은, 당신들과 모두 다르다. 이것은 당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제자: 끊임없이 법을 배움에 따라 머릿속에 있는 일이 갈수록 적어지며 심지어 어떤 때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는데, 이것은 자신의 主意識(주이스)가 약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수련이 빛나간 것입니까?

사부: 아니다. 내가 또 당신에게 알려주는바 이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다. 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말하는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 속인사회에서 두뇌의 반응이 아주

사부: 부처는 인(印)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불법의 장엄한 체현으로서, 고인도에서 번역해 온 개변하지 않은 한 고유명사로서 인(印)이라고 한다. 제인(結印)이나 대수인(大手印)이나 소수인(小手印)이나 그것은 법상(法像)과 법어(法語)의 또 다른 장엄한 표현이다.

제자: 저는 수련한 지 곧 1년이 되는데 아직도法輪(파륜)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부: 이렇게 말하자. 만약 당신 자신이 조금도 변화가 없고, 법이 당신에게 가져온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거나, 혹은 당신이 속인 상태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깨달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나는 믿지 않는다. 당신이 수련인이라면 말이다. 당신이 기필코 보아서 체현해 내고, 혹은 속인이 보는 것처럼 똑똑하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체현해 낸다는 것은, 내 생각에 아직 안 된다. 당신들 자신의 조건에 근거하면, 속인 사상의 상태가 같지 않고 장래에 원만을 이루는 것도 같지 않기에 매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같지 않으며, 이 일을 하는 자체가 절대로 천편일률일 수 없다. 의도적으로法輪(파륜)을 보려고 하는 이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보지 못한다.

다.法輪(파륜)에서 나온 영해입니까?

사부: 이런 상황은 모두 좋은 일이다. 그러나 또 그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영해는 아주 작은 것이다. 우리 매 한 사람마다 과거의 배경은 모두 극히 복잡하다. 그러므로 이 방면에 관여하지 말라. 또 아마 당신이 예전에 데리고 온 것이거나 혹은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자애라니 아마 좋은 일일 수 있다. 그 아이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수련에만 전념하라.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지 못한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아직 알아듣지 못했다. 내가 예를 들어 말하겠다. 그러나 반드시 이 상황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내려와서 환생할 때 그의 이전의 아이도 따라서 내려왔다. 그러나 그 아이는 환생하지 않고 저쪽에서 따라다니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생 전세의 아이가 있는바, 그는 이 생애 환생하였지만 그 아이는 그 세(世)에 환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아주 영기(靈氣)가 있어서 항상 따라다니는데, 또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 어느 상황이든지 다 있다. 당신이 정법을 얻었기 때문인데, 만약 당신과 인연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당신을 위해 이 일체를 배치할 것이며, 모두 당신을 위해 이 일체를 적절하게 배치할 것이므로 더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제자: 저는 갖은 애를 다 써서 궁리해도 제출할 문제가 없는데, 수련을 아주 잘못…… 한 것이 아닙니까?

사부: 우리 수련을 잘한 일부 노수련생은 나를 보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나도 그가 말을 못해 끙끙 앓으면서 답답해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에게 묻고 싶은 말이 가득했는데, 일단 나를 만나고 나면 그는 아무 말도 없다.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인지 알려 주겠다. 당신들이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만났을 때 다 이렇다. 나를 만나서는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끊임없이 수련하노라면, 당신들의 수련으로 명백해진, 수련이 잘 된 그 일부분을 당신들에게서 격리하여 잘 수련되지 못한 그 일부분과 갈라놓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잘 수련되지 못한 이 부분이 늘 명백하지 않아 곧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 물어보려고 한다. 그러나 나를 만나고자 하여, 사부를 만나고 보면 당신의 수련 잘된 그 일부분도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가 깨어나게 되면 당신 속인 이쪽은 완전히 이끌려간다. 당신들이 여기에 앉아서 왜 좋지 못한 생각이 없고 이렇게 상서롭고 화목한가? 바로 당신들의 수련이 잘된 그 면이 깨어났기 때문에, 전체 신체가 곧 수련 잘된 그 면에 이끌려 간 것이다. 당신이 말해 보라. 수련이

린 것이다. 우리는 대법에 따라 수련하는데, 읽고(讀) 보며(看) 단체 연공을 한다. 많은 시간을 들여 법을 읽고, 법을 보며, 적은 시간으로 자신의 체득을 말한다. 혹은 당신들이 연공을 끝낸 후 서로 좀 말하는 것은 모두 괜찮다. 당신이 수련시간이나 법을 읽는 시간을 점하여 체득을 담론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지 못하다. 어떤 사람이 하는 일부 말은 모두 각종 사념(私念)을 띠었고, 각종 정서를 지니고 있으며, 심지어 말하는 것은 법과 모두 다른 별개의 일인데, 당신은 바로 수련생을 빗나가게 이끈 것이고 심지어 터무니 없는 생각을 한 것이다. 사람은 모두 속인의 사상이 있다. 우리 수련생들 중에 노수련생이든, 신수련생이든 모두 당신으로 하여금 말해 내도록 할 수 없으며, 또 당신으로 하여금 글자 표면보다 높은 이치를 말하게 할 수도 없고 또 알게 할 수도 없다. 당신이 논한 것은 필경 모두 글자 표면, 표면의 이치이다. 왜냐하면 천법(天法)은 속인 중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 그가 어찌 된 것인지 모르겠고 그가 어떻게 그런 난잡한 것을 깨달아냈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자: ‘인(印)’의 번역문은 무엇입니까? 왜 ‘제인(結印)’이라고 해야 합니까?

성해 주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한 더미의 큰 집착심을 어떻게 제거하겠습니까?

사부: 그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매 사람마다 모두 부동한 상태가 있는바 혹은 이렇거나 혹은 저렇거나 혹은…… 여러 면의 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부디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 정말로 난이 오는 그 날 당신은 또 넘기가 쉽지 않아하며, 난이 없으면 당신은 또 그리워한다. 모두 원인이 있는 것이며, 사실 어떤 사람은 또 확실히 그렇게 많은 난이 없는데 이 점도 분명하다.

제자: 우리 연공장에는 몇십 명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안색이 좋지 못합니다. 우리는 착실하게 수련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사부: 일부 연공장은 매우 비정상이다. 수련생들 중에서 일부 어떤 골목소식을 전하면서 난오(亂悟)하고 있다. 본래 이것은 내가 말한 법과 아무 관련도 없는 일로서, 그는 한바탕 난오(亂悟)하고 또 수련생을 데리고 이런저런 추측을 하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한다. 또 법을 논의하는데, 이 법은 어떠한가하고 이 단락은 어떠한가하며 저 단락은 어떠한가하고 한다. 인간이 법을 논의할 자격이 있는가? 적어도 당신은 아직도 사람의 생각이 있으므로 그렇게 하면 틀

잘된 그 일부분이 만약 표준에 부족하다면 수련이 잘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는 무엇이든 다 안다. 다만 수련이 잘 되지 않은 그 부분만이 알지 못할 뿐이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 때에 당신은 더 묻고 싶지 않은 것이다. 어떤 문제를 물을 것이 없이 다 알며 아주 명백해진 것이다. 일단 나를 떠난 후라면 그는 또 관여하지 않고 그는 또 정지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당신 이쪽은 또 명백해지지 않는다. 방금 전에 내가 왜 사부님께 묻지 않았지! 이런 상태가 아닌가? 사실은 이런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책을 많이 보아야 한다. 책을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보라. 반드시 책을 많이 보아야 한다. 이는 우주의 법이다. 옛적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떤 법문이든, 속인사회에서 유전되는 법은 모두 여래 경지 또는 여래 이하의 속인 중에서 유전하는 법이었다. 이렇게 큰 법을, 우주의 부동한 생명에게 부동한 생존환경을 창조하고 전체 우주를 육성한 이런 대법을, 단지 당신이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 높은 내포를 보아내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나 당신이 과위에 도달했다면 당신이 수련 원만하여 알게 되는 일체는 모두 그 속에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책을 많이 보아야 한다. 책을 많이 보라. 물론 우리 노수련생들은 이미 알고 있다. 문제가 있을 때 곧바로 가서 책

을 보면 틀림없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잇따라 새로운 경지 중에서 더욱 높은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것인데 당신이 또 책을 보면 그는 또 당신에게 해결해 준다. 그리하여 잇따라 당신은 또 이 경지 중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당신은 또 가서 책을 보고, 그는 또 당신에게 해결해 준다.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수련하고 끊임없이 승화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이 법이 당신에게 해답을 해주므로, 당신 자신이 평소 생활 중에서 엄격하게 당신에게 요구하고 끊임없이 제고하면 당신은 바로 용맹정진 중에 있는 것이다.

제자: 명리정(名利情)의 근원은 이기심(自私心)입니까?

사부: 명(名)과 이(利) 이런 것은 모두 이기심이다. 정(情)은 내가 과거 설법 중에서 이미 말했다. 그것은 우리 이 층(層)의 인류 공간과 삼계 내에 가득 차 있다. 삼계 내의 어떤 생명이든 모두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서 모두 그것의 제약 중에 있다. 사람은 바로 이 정(情) 속에 있는데, 당신이 그것에 집착할 때일수록 이 정의 힘은 더욱 커지며 더욱 작용을 일으킨다. 특히 사람이 가족을 잃었을 때나 혹은 젊은이들이 실연을 당했을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의 힘은 더욱 커진다. 그것은 삼계 내의 것인데, 수련하는

사부: 진정한 수련인이라면 당신의 느낌 감각이 아무리 영민해도 그는 당신에게 어떤 상해도 입힐 수 없다. 당신이 수련하는 신체는 모두 공인데 공보다 낮은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가? 그는 당신과 큰 경지와 층차의 차이가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과 사람간의 악수나 속인과 속인간의 접촉이나 악수는 확실히 업력으로 하여금 일종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적어도 묻거나 읊는다. 이 점은 분명하다. 현재 여러분은 모두 악수한다. 악수하는 것은 서양 백인사회에서 전해온 것이다. 동양인은 과거에 악수하지 않고 만나면 포권(抱拳)을 하는데 역시 아주 좋은 것이다. 여인들은 그렇게 포권을 하지 않는바, 예쁘지 않으므로 그녀는 이렇게 오른쪽 배 앞에서 포권을 하되, 몸을 한쪽으로 살짝 젖히고 다리를 한번 굽힌다. 서양 문예부흥 이후에 비로소 악수가 나타난 것 같다. 과거에는 그도 악수하지 않았으며 그는 그의 예절이 있었는데 또한 다른 것으로, 어떤 것은 이렇고 어떤 것은 저렇고, 아무튼 각양각색으로, 각종 예절이 다 있다. 악수는 후에 형성된 것이다. 우리는 허스(合十)가 있지 않은가? 불문의 예절이다.

제자: 수련한 지 1년 남짓 이래로 나에게 번거로움을 조

사부: 그렇다. 이 점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책을 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보고 이해했다. 아! 명백해지자마자 신체는 갑자기 한번 진동하거나 한번 뜨거워지거나 하는데, 그것은 단지 하나의 미약한 감각에 불과하다. 사실 그때 신체의 변화는 극히 강렬한 것이며, 그 쪽 면에서는 어디나 다 솟구치고 있다. 당신이 또 한 층차를 제고했기 때문에, 신체는 부동한 층차에서 모두 부동한 형식의 변화가 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국 사찰 안의 그 불상은, 머리 위에 머리 네 개가 생기며, 혹은 머리 네 개 위에 또 머리 세 개가 생겨나며, 머리 세 개 위에는 머리 하나가 생겨난다. 사실 이것은 부처의 일종의 부동한 층차 중에서 나타나는 법상(法像)의 표현형식이다. 다시 말해서 부동한 층차에서 신체 상태의 변화는 모두 상당히 강렬한 것이다. 위대하고 장엄하며, 또 위엄이 있고 오묘무궁(奧妙無窮)하다. 그러므로 당신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원인이 있는 것이다. 당신들은 속인의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인의 마음으로 가서 이해할 것이며 심지어 이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될 것이므로 다 안 된다.

제자: 악수나 신체의 접촉은 업력의 전달을 초래할 수 있습니까?

사람인 당신은 반드시 그것을 떨쳐버려야 하고, 이 정을 내려놓아야 하며, 그것을 초월해야 한다. 이 이(利)와 명(名)에 대하여 말하자면 이런 것은 사람이 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사실 역시 내원은 정(情)이다. 명(名)이 있다면, 자신은 바로 명(名)이 가져다준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오오, 기쁘구나,’ 명과 이를 추구하는 것은 바로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만족하면 기뻐하지 않겠는가? 당신이 기뻐하는 것은 또 정이 아닌가? 그리하여 그것은 당신에게 기쁨과 영예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정이 아닌가? 당신은 이익상에서 만족을 얻으면 당신은 또 기뻐하지 않는가? 역시 정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바로 이 정을 위해서 살고 있다. 속인 중에서 당신이 기뻐하거나 기뻐하지 않거나, 무엇을 반대하거나 반대하지 않거나, 당신이 무엇을 가지려고 하거나 가지려고 하지 않거나, 당신이 어떤 상태에 도달하려 하거나, 당신이 무엇을 보면 좋고 무엇을 보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당신이 어떻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일체가 모두 정이다. 사람은 바로 정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말한다. 인류사회에 정이 없을 수 있는가? 인류사회에 만약 정이 없다면 사람 사는 것은 재미가 없고 정말로 재미가 없다.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심(私心) 문제에 관하여 내가 방금 전에 당신에게 이 이치를 말했을 때 당신들은 모두 박수를 치면서 마음속으로 아주 기뻐했다. 미래의 우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내가 말했을 때 당신들은 모두 기뻐했다. 왜 이럴 수 있는지 여러분은 아는가? 어떤 사람은, 사람이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는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좌우명으로 삼는다. 사실 당신들은 아직 모르는데, 이 사(私)는 아주 높은 층차에까지 관통되어 있다. 과거, 수련하는 사람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 ‘나는 무엇을 하겠다.’, ‘나는 무엇을 얻겠다.’, ‘나는 수련하고 있다’, ‘나는 성불하겠다.’, ‘나는 무엇에 도달해야 하겠다.’고 말하는데 사실 모두 그 사(私)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당신들이 진정으로 순정(純正)하고, 무사(無私)하여, 진정한 정법정각(正法正覺)으로 원만(圓滿)을 이루는 것인데, 그래야만이 비로소 영원한 불멸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 준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당신들은 우선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에게 돈만 주면 기뻐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돈을 주었을 때 다른 사람은 이로 인하여 불행을 당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을까 혹은 어떠한 까를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내게 무엇을 주는 것만

그의 전체 세계의 것은 완전히 다 흐트러진다. 마치 열반한 석가모니에게, 당신이 그에게 신체를 주면 그는 열반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전체 범문을 다 흐트러 놓은 것이 아닌가? 그의 세계는 다 계(戒)·정(定)·혜(慧) 이 요소로 구성된 것이므로 그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속인의 사상으로 ‘아, 이 백일비승이 얼마나 좋은가?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날아간다는 것을 좀 보게 하자.’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속인의 마음으로 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곧 원만을 이룰 때면 제 나름의 원만 방법이 있다. 그러나 우리 이번의 원만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한 차례 심각한 교훈을 남겨줄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나의 제자의 원만은 아마 틀림없이 인류사회가 다 영원히 잊지 못할 한 차례 장관일 것이다. (박수)

얘기는 이렇게 했지만 어떤 마음이든 다 내려놓아야 하며, 이런 일을 상관하지 말라. 오로지 수련만 하라. 당신이 수련성취하지 못하면 무엇이든 다 영(零)이다.

제자: 『전법륜』 책 중에 부동한 글자의 배후에는 부동한 불(佛)·도(道)·신(神)이 있습니까?

누구누구누구를 아주 먼 지방에서 봤는데, 내가 장사를 할 때 우리는 또 이야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의 가족들은 “아니, 이미 죽었다.”고 한다. 그 사람은 “나는 그를 보았고, 그는 죽지 않았으며, 나는 확실히 그를 보았고 또 그와 이야기를 하였으며 또 함께 밥까지 먹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이것은 이상하다. 그는 확실히 죽었는데 라고 말한다. 가족들도 그가 수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파 해쳐보자고 한다. 관을 열고 보니 신발 한 짝만이 그 속에 있었다.

도가에서는 또 일종의 형식이 있는데 백일비승(白日飛升)이라고 한다. 백일비승이란 바로 그의 신체가 완전하게 수련되었고, 그는 수련원만 전 세간에서의 소원도 풀었으므로, 어떤 할 일도 없어 이제 떠나야 했다. 이때에 천문(天門)이 열린다고 하는데, 곧 삼계 내의 대문이 열리는 것이다. 연후에 어떤 이는 천신(天神)이 나타나서 그를 마중하거나, 혹은 용(龍) 또는 학(鶴) 등등이 있는데, 그는 타고 날아가 버린다. 혹은 하늘 수레(天車)가 와서 그를 싣고 간다. 이런 종류의 일은 고대에는 아주 많았는데 이런 백일비승도 있다. 우리 이 한 문法輪世界(파룬쓰제)로 가는 데는, 나는 백일비승 이런 방법을 취하려 한다. 또 어떤 법 문은 신체를 원하지 않으므로 당신이 그에게 신체를 주면

기빠할 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른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대해주면 우리는 기빠하기만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극히 고통스러운 중에서 어찌지도 못하면서 또 당신에게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바, 어떤 일이든 다 있다. 바로 당신들은 오늘의 수련에서 시작하여 어떤 일을 하든, 모두 다른 사람을 고려해야 한다.

제자: 『제2권(卷二)』에서 바다 속에도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부: 그렇다. 어떤 이들은 우리 이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이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다. 바다 속에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등한 층차에 존재하는 다른 공간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바,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당신들과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를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그를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된다. 그는 일부 정(情)은 있지만 속인의 욕망(慾)은 없기 때문에 그의 하반신은 물질형(物質型)이며 상반신만이 인간형(人型)이다. 그리하여 그는 떠서 날아다닌다. 바다 속의 대다수 사람은 과거에 지구상의 다른 한 시기에 도태된 사람에 속한다. 또 어떤 이들은 바다 밑(海底)의 사람으로서 사람

과 비슷한데, 상반신은 사람이며 하반신은 물고기인 이들도 있고, 상반신은 물고기이고 하반신은 사람인 이들도 있다. 또 대륙판 아래에도 과거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과거에 도태된 사람으로서 그는 올라올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 의해, 곧 지구에 의해 도태되었기 때문인데, 그들 중 일부는 그렇게 큰 죄업이 없음에도 그는 곧 땅 속으로 뚫고 들어갔어야 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 것으로, 그도 나오지 않으며 바로 그 속에서 생존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아주 적다. 흔히 그들은 모두 사람에 비해 좀 능력이 있는데 사람처럼 이렇게 미혹되지 않는다. 됐다. 당신은 더는 호기심을 갖지 말고 이런 일에 관여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의 수련과는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제자: 장래에 새로 출판할 일본어 대법 책을 정식으로 발행한 후, 구판 번역문에 착오가 있는 책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부: 그에게 착오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만 번역이 부적절했거나 혹은 단어를 사용할 때 아직 정확하지 못했다고 다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역시 처리하지 말고 그냥 두라. 왜냐하면 어떠한 종류의 판본(文本)도 증문을 조금도 빗나가지 않게 번역해

게 일종의 거짓죽음을 표현해 내는 것인데, 실제로 그 때에는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두 할 수 있었다. 떠나갈 때가 되면 그는 가족들에게 알리는데, 그는, 내가 곧 원적(圓寂)할 것이며 이미 수련이 다 되어 나는 곧 갈 것이니 나에게 관 하나를 준비해 달라고 말한다. 마침내 그 시각이 되면 그는 바로 침상에 누워 잠시 후 숨을 거둔다. 가족들이 보니 죽었으므로 그를 관에 넣어 매장한다. 실질상으로는 그가 ‘장안법(障眼法)’ 이 신통을 사용한 것이다. 그 날이 지난 후 그의 가족들이 본 그는 그의 진신(眞身)이 아니다. 무엇인가? 그는 지물화성(指物化成)한 것이다. 그는 신발 하나 혹은 빗자루 하나 혹은 막대기 하나 혹은 그 검(劍)을 자신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데, 지물(指物)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어떤 말이든 다 할 줄 알아서 그의 가족들과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기에 누워서 잠시 후 죽는데 나를 관에 넣으면 그만이다. 실재는 그 나무 혹은 그 빗자루 신발 한 짝일 수도 있다. 진인(眞人)인 그는 이미 떠나갔으며 멀리멀리 갔다. 가족들은 그를 물어버린다. 실제로 물어버린 후 두 시간이면 그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은 또 신발 한 짝, 혹은 죽간 하나, 혹은 나무 한 토막이다. 이것을 바로 시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이 다른 지방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어이, 당신 집의

측면의 물질을 지니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하고 다만 빛만 볼 수 있는데, 빛 그림자는 올라가 버린다. 그런데, 수련이 조금 부족한 사람은 그의 신체를 완전히 홍화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그가 홍화될 때면 순식간에 한 사람의 신체가 “짜” 하면서 한 자 크기의 완전한, 그와 모양이 똑같은 한 자(尺) 크기의 사람으로 변하는데 신체의 크고 작음이 아주 균일하다. 바로 그의 수련이 아직 부족하여 전부 홍화되지 못해서다.

또 다른 상태가 있다. 중국의 도가에서는 원만을 이룰 때 ‘시해(屍解)’를 말한다. 무엇을 시해라고 하는가? 고대 중국에는 많은 사람이 대도(大道)를 수련했다. 대도 수련법은 수련성취한 후에도 신체를 가지는데, 신체를 가진다 해도 육신은 속인의 신체가 아니며 이미 완전히 고에너지물질로 전화되었는 바, 그는 이미 그의 도체(道體)가 되었다. 그의 시해 방법은, 바로 그 자신이 이미 수련되어 원만에 이르렀고, 그의 신체 역시 완전히 수련된 것을 안다면 그는 인간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어떻게 떠날 것인가? 많은 수도하는 사람들이, 그가 속인 중에서 미처 이루지 못한 소원을 원만을 이룬 후에 해결한다. 불문에서는 이렇지 않다. 그가 원만을 이루는 중에 해결한다.

시해는 바로 그가 떠난 후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찾지 않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는 또 여러 종류의 판본(文本)이 있는 것은 오히려 좋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이 보니까, 이런 뜻이 있구나, 아, 저런 뜻이 있구나, 알고 보니까는 이런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 좀 좋은 점도 있다. 이런 것이다.

제자: 담이 작은 것은 집착심입니까 아니면 생리적인 원인입니까?

사부: 담이 작은 것은 역시 이 우주 중의 그런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신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바 그것을 바로 두려움이라 한다. 당신이 두려워할수록 그것은 더 작용한다. 당신이 의지로써 극복해야 하는바 이것은 당신의 의지 문제이다. 또 수련 중에서 돌파해내야 한다.

제자: 연공할 때 항상 수련과 홍법, 사부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을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사부: 어느 한 시기의 상태인바 장래에는 좋아질 것이다.

제자: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살생하면 업력은 여전히 나의 몸에 있습니까?

사부: 만약 당신이 이런 직업의 일을 한다면 나는 이런

장소에서 이 문제를 말하고 싶지 않다. 나는 경문 두 편에서 이미 이 문제를 말했으며 이미 그것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자. 당신들이 알다시피 당신들은 세세생생 얼마나 많은 생명을 해쳤겠는가? 매 한 사람마다 모두 아주 많다. 만약 법이 작다면 당신들은 금생에 수련성취 할 수 없는 것이며 당신들은 매 일생마다 모두 빚진 명(命)을 갚아야 한다. 불교에서는 일생에 수련성취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곧 그들도 보아낸바 살생한 것은 명(命)으로 갚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당신으로 하여금 원만을 이루게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당신이 살생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신들이 진 빚, 곧 그것들을 고통스럽게 한 그 일부분을 당신들이 소업하고 고통 속에서 갚는 것 외에, 절대 다수는 내가 당신들에게 없애주어야 하며, 남은 것은 당신들이 갚아야 하는데, 당신들이 능히 이 관을 넘을 수 있게 한다. 동시에 당신들이 해친 일부 생명은, 당신들이 미래에 원만을 이룬 세계에서 당신 세계의 중생이 될 것이므로, 바로 이 일을 좋은 일로 변하게 한 것이다. 만약 피해를 본 생명 그가 ‘아, 내가 장래에 부처님의 세계에 간다.’는 것을 안다면, 그는 목을 내밀고 당신에게 그를 죽여 달라고 할 것이다. 그는 기뻐하면서 당신에게 그를 죽여 달라고 할 것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매 한 관을 다 잘 넘길 수 있다면 당신은 수련할 필요가 없고, 어떤 관도 당신을 가로막지 못한다면 당신은 바로 원만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돌려 말하면, 사부님께서 우리가 잘 넘기든 잘 넘기지 못하든 다만 우리는 수련만 하면 된다고 했다 하여, 당신이 이후 자신을 느슨하게 하고 잘 넘기지 못하고서도 개의치 않는다면 당신은 또 수련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바로 이런 관계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자: 어떤 것을 원만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까? 속인처럼 죽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부가 배치한 것입니까?

사부: 원만에는 여러 종류의 형식이 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는 열반을 말하는데 그것은 최대한도로 사람의 집착심을 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의 한 법문은 인체(人體)마저도 가지지 않으므로 당신도 신체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바 바로 이렇게 수련한다. 티베트의 라마교에서는 홍화(虹化)를 말하는데, 바로 원만에 이르고자 할 때 거기에 앉아 있는데, 만약 당신의 모든 신체가 다 잘 수련되었다면 원만에 이르는 그 순간에 바로 한 갈래 붉은 빛으로 신체를 변화시키고서 그 자신 元神(웬선)이 수련된 불체(佛體)를 가지고 간다. 그러나 잘 수련된 불체는 속인의

사부: 만약 환경이 허락되고 또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다면 상관없다. 비디오를 방영할 때에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한다.

제자: 수련한 지 일 년 남짓 되었는데, 수련할수록 취약해지는 것 같고, 작은 집착에도 마음이 아주 심하게 파동을칩니다.

사부: 아마 당신 자신이 갈수록 민감하게 변하여, 자신이 수련을 잘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 할 수 있는데, 이 마음도 갖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련하되, 자신에게 엄격하게 요구해야 한다. 우리 개개 사람마다 수련 과정 중에 모두 잘못할 수 있고 모두 넘기지 못하는 관이 있다. 만약 매 한 관마다 당신이 모두 순조롭게 넘길 수 있다면 이 사부인 내가 배치를 잘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매 한 관마다 넘기기가 매우 어려운바, 당신은 넘기도 하고 넘지 못하기도 하며, 잘 넘기기도 하고 잘 넘기지 못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잘 넘기지 못하면 당신은 고통스러워할 줄 알고, 당신은 수련을 잘 하지 못하면 자신을 뉘우칠 줄 알아 다음번에는 잘 수련한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넘길 때 바로 이런 상태에서 넘어가거나 넘어가지 못하거나 자신이 자신을 검토하며,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바, 당신은 바로 수련하고

이다. 물론 그것은 과위가 없는 것으로, 그것은 그 세계에 가서 중생이 되고, 당신의 부처세계에 가서 백성이 되거나 혹은 동물이 되거나 꽃이나 새가 되는데, 아무튼 부동한 생명에 따라 부동한 배치가 있다.

그러나 말은 이렇게 했지만 어떤 사람은 아마도, 아, 그렇다면 나는 살생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하며 반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수련하여 원만에 이르지 못한다면, 당신이 살생한 것은 당신이 장래 영원히 갚아도 다 갚지 못하지만, 당신은 오히려 다 갚아야 하는, 바로 이렇게 큰 업을 빚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극도의 고통 중에서 당신의 빚 갚음은 거의 끝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주 무서운 일이다. 어제 어느 수련생이 사부님이 지옥은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 이 장소가 이처럼 신성한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다. 물론 나에게서는 무서워할 어떤 것도 없다. 그러나 일부 사람에게는 아주 무서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에 방금 전에 내가 직접 정면(正面)으로 당신에게 대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미 똑똑히 말했다고 생각한다.

중국에 한 수련생이 있는데 의학박사 과정으로 그는 마침 해부 실험을 하고 있었다. 실험을 다한 후 그는 곧 박사학

위를 받게 될 것으로, 곧 무슨 시험이든 다 합격할 것인데, 아직 얼마간의 실험을 해야 했다. 1천 마리인지 5백 마리인지 실험용 작은 쥐를 해부하고 나면 그는 바로 박사학위를 받을 것이었다. 나중에 그는 그의 지도교수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지금 法輪大法(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있는데, 나는 살생은 업을 짓는 것임을 알았다고 했다. 나중에 그는 그의 지도교수에게 나는 살생할 수 없으므로 나는 학위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사람이 만약 생사 이 관을 넘지 못하면 그는 원만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을 결단코 한 번만이라도 아프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사를 내려놓은 것으로 쳐줄 수 없는데. 그것은 다만 형식일 뿐으로 나는 중하게 보지 않으며, 나는 당신의 마음을 보고 진정하게 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사람이 세상을 삶은 단지 명리를 위해서일 뿐이다. 그가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장래 좋은 직장과 전망(前程)이 있을 수 있고, 그의 봉급도 자연적으로 많을 것인데, 그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보통사람보다 높을 것이고 일반 사람보다 높을 것이다. 사람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가 이것마저도 가지지 않는다면, 그는 이것마저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 한 젊은이로서 이런 것마저도 가지지 않을 수 있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그에게 한마디 일깨워 주는 것이다.

제자: 최근 들어 늘 아주 좋지 못한 심태가 드러나고 선념(善念)이 없으며 사유도 아주 산란한데, 제가 정말로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진 것입니까?

사부: 자신에 대해서 느슨히 하면 업력은 미친 듯이 날뛴다. 만약 당신 이쪽이 강해지면 그것을 억제할 수 있다. 억제하였을 때 내가 보니 당신은 정말로 관참고 수련하는 사람이라. 그렇다면 바로 책임져 주어야 하며, 당신에게 이런 것을 아래로 소멸시켜 주어야 하는 바로 이런 한 층의 관계이다. 하지만 당신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은 아, 내가 그것을 억제만 하고 사부님께서 나를 위해 소멸시켜 준다면, 나는 바로 억제하겠다고 한다. 바로 내가 방금 전에 말한 병이 있는 그 사상처럼, 당신은 내가 당신을 소업시켜 줄 것을 바라고 당신이 비로소 연마한 것이기에 역시 안 된다! 아무튼 어떠한 일도 당신이 집착해서는 안 되며 정념(正念)이 있어야 한다.

제자: 공원에서 단체 연공할 때 스승님의 연공동작 비디오투를 방영할 수 있습니까?

범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의지가 반드시 강해야 하며 의지가 반드시 확고해야 한다.

제자: 어떤 사람은 원만할 때 本體(번티)도 전화시키지 않고, 또 원영도 수련해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부: 내가 말했지만, 우리 대법 제자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지 않은 층차에서 왔는데 그렇다면 아마 부동한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관여하지 말라. 오직 당신이 수련만 하면 나는 틀림없이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 자신이 가장 만족해하는 상태에 도달하게끔 할 것인데, 때 사람마다 모두 다 이렇게 한다. 내가 당신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우주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박수)

제자: 『전법륜』을 읽을 때 불(佛)·도(道)·신(神)의 뚜렷한 점화가 느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착실하게 수련하는 과정 중에서 법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부: 바로 당신이 깨달을 수 있으면 점화가 필요 없다. 당신이 자각적으로 이 점을 해낼 수 있다면 자신이 도를 깨달은 것이므로 이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깨닫지 못하는데 또 그를 보니 될 성싶은 사람이므로

다면, 무엇이든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바로 생사마저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닌가? 사람은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사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수련의 경지가 사실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사람에 대하여, 그들의 이런 상황에 대하여 내가 말하는데, 이왕 정을 내려놓을 수 있고 명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살생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자체도 내려놓아야 하지 않는가? 이것은 최후의 집착을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 내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만약 그 경지에 도달하지도 못했고 또 생사관도 넘기지 못한다면 이 일체를 내려놓을 수 없는데,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므로 모든 살생한 것을 장래에 자신이 끝없이 갚는 중에 갚아야 하는바 바로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법리·이치는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해 주었지만 어떻게 하느냐는 역시 자신이 가늠해야 한다. 대법의 원칙을 말해주었고 살생할 수 없음을 말했다. 당신이 오직 수련하고자 한다면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법은 더욱 높은 경지에서 원용하는 것이며, 법은 또 부처의 그 경지 중의 이치를 체현하였다. 나는 말했다. 당신이 해친 그 부분의 생명은, 원만을 이룬 당신들 미래의 세계에서 중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원만을 이루지

못한다면 일체는 모두 영(零)이다! 모두 자신이 갇아야 하는바 바로 이런 관계이다. 그러므로 나는 고층차의 법을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지금 말해도 많은 사람은 내가 말한 이치를 진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법은 모두 속인 중의 이치보다 높은 것으로 당신이 고금중외의 서적을 다 뒤져보아도 찾을 수 없고 다른 어떤 경서 중에서도 당신은 찾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듣고 싶어 하는데 부디 지식으로 여기지는 말라. 나는 당신이 지식을 요구하는 그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제도하고 있고 설법하고 있다.

제자: 사부님께서는 항상 ‘우리(我們)’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부: 나는 현대 중국대륙의 어휘를 사용한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들은 모두 대법 중의 일원인데 그렇다면 역시 대법의 한 분자이므로 나는 당신들을 ‘우리’라고 말했다. 나는 당신들이 듣고서 아마 자신을 진정한 수련 중에 놓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이런 생각이다.

제자: 한 사람이 어떠한 비로소 정신병에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부: 정신병은 바로 자신이 자신의 신체를 주재할 수 없는 것으로 대단히 취약하여 일단 번거로운 일에 부딪히면 아무 것도 관여하려 하지 않는다. 主意識(주이스)가 마치 잠든 것처럼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고 단번에 이 신체를 놓아버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때 사람은 바로 속인이 말하는 정신병 상태가 나타난다. 무엇 때문인가? 당신의 主意識(주이스)가 이 신체를 관여하지 않으므로 곧 당신은 이지적이지 못하다. 그렇다면 당신의 각종 업력으로 구성된 사상과 당신의 후천적으로 형성된 각종 관념이 신체·입·눈, 당신의 일체를 주재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헛소리를 하고, 미친 짓을 할 것인데, 어떠한 속인의 규범적인 행위도 없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정신병이라고 한다. 내가 말하건대 정신병은 병이 아니다. 어떠한 병의 상태도 없는바, 바로 그의 주사상(主思想)이 너무 취약한 것이다. 또한 선천적인 것도 있는데 태어나서 그의 주사상이 약하므로 이 신체는 항상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되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통제되도록 내맡긴다. 또 더군다나 각개 공간의 강렬한 정보의 교란 때문에 바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짓이든지 다 할 수 있게 한다. 이 대뇌 그것은 이미 갖추어져 있는 기계이므로 누구든 조종할 수 있다. 당신이 조종하지 않고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조종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규